13. 기업 무를 자
2012. 3. 25.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약에 기록된 기업 무를 자의 예언적 의미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의 배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룻2:20]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 하나이니라.

1.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구주가 오실 사람 계통에 대한 사실을 자세히 나눈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결코 구주를 잘못 알아볼 수가 없겠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이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무를 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기업 무른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낯선 말 같은데요?

답: 예, 기업이라는 말부터 별로 익숙한 말이 아니지요. 기업이라고 하면 무슨 기업은행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 말이지요. 기업은행 할 때 기자는 일 기자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터 기자입니다. 이것은 유업, 또는 유산이라고 번역하든지, 상속받은 것이라고 번역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뜻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것을 도로 찾아서 원래 그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기업 무른다고 한 것입니다.

2.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이 구주가 오실 것과 구원하시는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언제가 그 중심이 구주와 구주가 이루실 구원의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한 내용들에는 구속사업의 어느 면이든지 예언적 의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일이 좀 쉽지요. 옛날 구약성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기록하게 한 사건들이 구속사업의 어떤 면들을 나타내는지 지금 우리만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요. 더구나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신 구주를 환영하지 않고 정치적 메시야를 열망했기 때문에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오히려 뱀의 후손 노릇을 한 것이지요.

3. 참,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무를 자가 오실 구주와 그분이 하실 구속사업의 어떤 측면을 예언하는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답: 그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야기 나눈 내용, 루시퍼가 우주 장자 총회에 참석한 사실에서 암시 되었지요. 사단이 이 지구의 장자 자격으로 거기 참석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원래 이 지구의 소유권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이 지구의 통치권을 주신 것이고 그가 첫 아담이기 때문에 이 지구의 장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속임수로 뺐어간 것입니다. 기업을 빼앗긴 것이지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기업 무르는 사건은 바로 예수께서 이 지구를 사단에게서 다시 찾아서 첫 아담에게 기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기업 무를 자에 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이 지구 기업을 아담과 그의 구원받은 후손들에게 물어주시는 일을 하실 그것을 예언하는 사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4. 아,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룻기는 좋은 며느리 이야기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시어머니 이야기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날에 많이 설교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이야기가 중심 내용이 아니군요?

답: 그렇지요. 그런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통하여 기업 무를 자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었지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은 그 사건 자체는 별 복음적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구원의 복음의 귀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만 읽으면 아주 포르노 같은 사건들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서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5. 정말 그렇겠네요. 복음의 진상을 모르고 기록된 사건들만 읽으면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전도 그런 것을 읽으면서 이런 사건을 뭣 하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어떤 구원과 관련된 예언적 사실을 나타내는지도 이야기 할 시간이 있을는지요?

답: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용을 말하게 될 때에는 구원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성경적으로 찾아서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6. 그것은 그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좋겠고요, 지금은 기업 무를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그 이야기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답: 그래야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것을 12 지파에게 나누게 하셨지요. 12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자손들로 구성되었지만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13지파지요. 그런데 땅은 12 지파에게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12 지파가 나눈 그 땅에서 48 성읍과 그 주위의 땅들을 받아서 제사장과 성소 봉사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가 12 지파 안에서 삽니다. 그래서 12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행정 구역입니다. 아무튼 12 지파는 각각 분배받은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땅은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지의 소유주이고 이 사람들은 관리자들일 뿐이지요. 성경은 그것을 확실히 말합니다. 레25:23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다만 관리권만 매매 하는 것인데 그 한계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 주기지요. 희년이 되면 토지는 원래 관리 주인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했지요. 그래서 희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그 땅을 관리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돈으로 그 땅을 싸서 능력이 없어서 땅을 판 친족에게 돌려줄 수 있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기업 물어주는 것이라고 그 일을 하는 친족을 기업 무를 자라고 하지요. 목사님이 레25:23~28입니다.
[레25:23~28]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지시했지요.

7. 그러니까 기업 무를 자가 바로 이 지구를 사단에게서 찾아서 아담과 그의 구원받은 후손에게 돌리는 구주를 예언적으로 표상한다는 말씀이군요. 성경에 그런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요?

답: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8복을 말씀하실 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온유한 자에 대한 것이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19:28을 한 번 읽으시겠습니까?
[마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이 말씀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계11:15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기업 무를 자가 되신 것을 나타내고 첫 아담이 잃어버린 지구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1:6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럼 말씀들이 다 이 지구 기업을 물어주는 사건들을 가리키는 말씀들입니다.

8. 예, 목사님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만일 기업을 물어 받을 사람이 없으면 기업 무를 자가 있어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보다도 그 토지를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지를 돌려받을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 참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업 무를 자에 대한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 기업만 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무를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러 경우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가알'의 분사 형데요,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도거든요. 그래서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고엘이 감당해야할 일들은

(1)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고,(레25:25,26)

(2)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합니다.

[민35: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12, 21) 라고 했는데. "보수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고엘"입니다.

(3)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代)를 이어주어야 합니다.(룻4:5,6,10)

(4) 그 친족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값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민5:8] 만일 죄 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고 했는데, "친족"이라고 번역된 말이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내용의 구성에 따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엘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1) 친족이어야 합니다(신 25:5~7).

(2) 자원해야 합니다(룻 3:13).

(3)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레 25:25).

이런 성경의 지시를 따라 룻기에 고엘로 등장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그 의무를 다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친족은 토지를 무를 뜻이 있었으나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룻4:5~8을 목사님이 읽으시지요.

[룻4:5~8]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야 할지니라 6 그 기업 무를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무를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7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 이에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하여 엘리멜렉의 기업 무를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갔으며 보아스는 땅을 물어주는 것은 물론이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룻을 아내로 맞아 그 가문을 이어주는 고엘의 책

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사실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룻4: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룻기의 기록은 이 고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계시입니다. 보아스는 고엘인데 이 지구를 아담에게 돌려줄 고엘이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9. 아, 고엘, 기업 무른다는 사실이 단순히 토지 기업만 물어주는 것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주어야 할 친족의 여러 형편을 다 책임을 집니다. 벌금을 받아주고, 복수도 해주고, 심지어 자녀까지 낳아 대를 이어주는 군요.

답: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토지 기업을 물어주어도 그것을 관리할 자녀가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기업 물어주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 기업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주 예수님은 아담에 대하여 이 모든 고엘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엘은 (1) 친족이어야 합니다(신 25:5~7). (2) 자원해야 합니다(룻 3:13). (3)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해야 합니다(레 25:25). 이런 구약의 예언적 사실에 의하여 구주는 아담의 친족이 아니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없지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은 자원하여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상명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죽음을 넉넉히 대신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부활하시므로 새 생명을 드러낼 자경이 있으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말한 자격을 완전히 구비하신 고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애청자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10. 목사님 참 귀한 진리를 드러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성경 속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느낌입니다. 룻기를 통하서 그런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주셨군요. 그러니까 생명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친족 또는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군요?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 그렇겠지요. 그러나 생명을 이어주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속의 경륜과 상관없이 말한다면, 글쎄요, 표현이 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지요. 옛 사람들은 가문을 잇는다는 것을 엄청 크고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아들을 못 낳으면 칠거지악에 하나가 되었지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풍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습니다. 생명을 이어주는 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청하여 수행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귀한 구속의 복음을 당시의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풍습을 빌려 실제로 느끼고 깨닫도록 계획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 오난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지요.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별로 내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38장에 있는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형사취수(兄死娶嫂)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물론 유다 집안의 일은 신명기를 기록하기 훨씬 전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것이었다고 이해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기업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요. 시127:3에 말씀했지요.
[신25:5,6]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생명 기업을 무르는 것인데, 구주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회복시켜주실 것을 가리키는 예언적 제도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처지에서도 별로 내키지 않는 그 일을 자원하셔서 사람에게 생명 기업을 회복시키려고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11. 참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타내신 사랑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에 구원의 복음이 속속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가슴 벅찬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에 계속하지요.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이 모든 구속 사업에 대한 예언적 사실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예언들을 예수께서 다 성취하시고 구원사업을 이루셨으니 감사랍니다. 이제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회복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활하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